

전염병에 감염된후 어떻게 신기하게 회복되었는가?

사실이 증명하다 싶히 신기한 효과는 병원 혹은 약물치료에서 온것이 아니라 ‘구자 진언’에서 왔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레오는 본토박인 아시아계 캐나다인이다. 그는 매주일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기에 신체가 아주 건실하다. 레오는 자신이 무한 폐렴에 감염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3월 11일부터 레오는 발열하고 두통이 너무 심해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후 그의 아내 썸머도 감염됐다. 20여년간 파룬궁을 수련한 80여세인 레오의 장모와 장인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병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썸머가 감염된 후 그의 모친은 그더러 ‘구자 진언’: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_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_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넘하라고 했다. 썸머는 몇년동안 모친이 파룬궁수련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보전한 것을 친히 보았기에 모친의 말을 믿었고, 열심히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真善忍好)를 넘했다. 하루 후 40도 고열이 37도이상으로 내렸고, 이틀이 지나자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와 불편한 감각이 사라졌다.

썸머는 레오더러 성심껏 ‘구자 진언’을 넘하라고 했으나 레오는 두통이 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오는 계속해서 약을 먹었다. 그후 병원에서 폐부가 감염돼 염증이 생겼을 뿐만아니라 간장도 손상받았다 고 진단받았다.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때는 이미 신체가 허



▲ 2020년 3월 전염병기간 해외 파룬궁수련생들은 파룬궁진상을 전파하고 있다.

약해지고 초조해 했으며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썸머는 그의 신변에서 그의 손을 잡고 ‘구자 진언’을 넘하면 마음이 평온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레오는 접수했으며 한글자 한글자씩 중국어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真善忍好)를 따라서 넘했다. 당일 레오는 안정을 취하고 잠을 잘수 있었으며, 바로 이튿날에 상태가 선명하게 좋아졌다. 더는 초조해하지 않고, 식욕도 돌아왔다. 또 얼마후 레오는 기침을 짓지않았으며, 점차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왔고, 체력도 회복됐다. 회복된 후 스스로 풀발을 정리하기도 했다. 현재 레오는 이미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전염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레오처럼 위험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때 파룬궁수련생이 알려준 ‘구자 진언’으로

겁난을 피했다. 병독학 전문가 동위홍 (董宇紅) 과 린샤오쉬 (林晓旭) 박사는 세계 6개 국가, 6개 민족의 무한 폐렴감염자 사례 36건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병원에서 받지않거나, 혹은 병원에서 포기 했거나, 혹은 치료효과가 무효된 상황에서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이 ‘구자 진언’을 넘하면 현저하고 빠른 임상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11례 중병환자의 개선정도는 사람을 상당히 고무했다.

현재 날씨가 차지면서 전문가는 제 2차 전염병이 찾아올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럽에서 제 2차 전염병은 이미 만연되기 시작했고, 신강지역에서도 전염병이 불시에 나타났다. 만약 제 2차 전염병이 오게 돼 위험할때 ‘구자 진언’을 넘하면 당신을 보호해 겁난을 넘게 할 수 있다. 신당인

전염병은 눈이 있다: 미국에서 역병이 엄중한 원인을 찾다

무한 폐렴이 작년 12 월에 폭발한 후 점차 전 세계에 만연됐다. 수련자의 각도로 보면 전염병은 눈이 있다. 시간과 방향을 정하고 폭발하는 것이다. 사망 통계수치와 분석에서 병독의 목표성은 아주 뚜렷하다는 것을 발견할수 있다. 사람의 면역력이 아닌 매개인이 중공과의 관계, 각 국가와 중공과의 관계를 겨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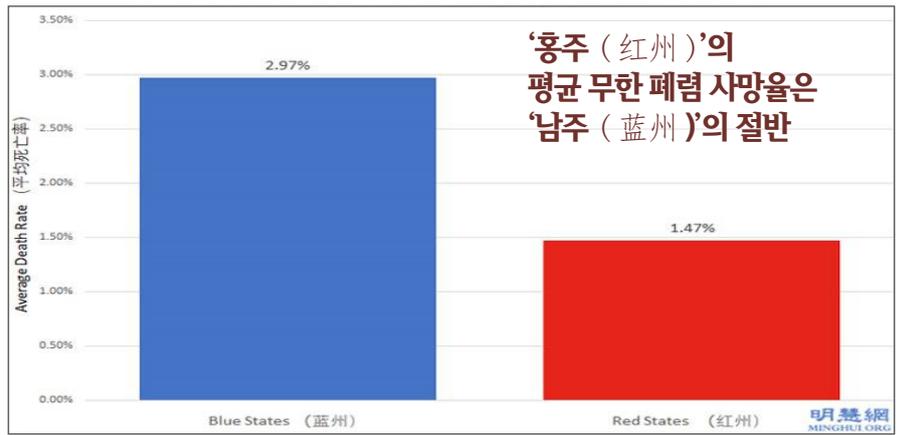
인터넷에 중공 모단위 2 월분 사망명단 내부통계가 전해졌는데 이 단위 전염병 감염 사망자 중 중공당원의 비례가 88% 높은 수치에 이르렀다. 사망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50 세 이하의 중청년이 총인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그중 30_49 세가 39.7% 를 차지했다) 중공정부에서 보도한 노인이 다수라는 것과 동일하지 않았다.

3 월에 들어와 해외 각 국 역병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졌는데 특히 미국은 더욱 엄중했다. 사람들은 질의한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줄곧 중공과 대항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전염병이 가장 엄중할까?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사기현상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중공에 의해 침투됐다!

공산주의는 중국인민을 잔혹하게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사회도 행운스럽게 면하지 못하게 했다. <공산주의 최종 목적> <공산주의 유형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에서 공산주의는 이미 전세계에 침투 됐으며, 진보주의, 환보주의, 여권(女权) 주의, 동성혼인 등 명의로 공산마귀를 실천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좌우가 분열되어 국가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대선의 풍파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진실한 표현이다. 미국 좌파배후의 흑수는 바로 공산주의이다.

사람들은 미국 대선에서 좌파세력이 정권탈취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률과 도덕 최저선을 도전하는 것을 보았다. 중공식의 초한전(超限战)이 미국 본토에서 연출됐다.

좌파 주류매체는 진실을 무시하고,



▲파란 막대는 ‘남주’(좌파주, 바이든 당선을 인정)의 평균 사망율을 나타낸다. 붉은 막대는 ‘홍주’(트럼프 당선을 인정)의 평균 사망율을 나타낸다.

바이든 선거를 위해 거짓을 퍼뜨렸다. 그들은 트럼프를 먹칠하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바이든 가족의 스캔들을 은폐시켰으며, 심지어 바이든이 당선됐다 고 제멋대로 선포했다. 부정선거가 폭로된후 매체는 또 입을맞춰 트럼프대통령과 민중의 소송이 뒤집혔다는 등 직업도덕을 완전히 상실한 보도를 했다.

사회매체 거두(巨头)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발표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글을 여러 차례 차단 하거나, 혹은 모두다 “논쟁성이 있는 내용”이라 마크를 달아줬다. 하지만 바이든의 “당선”과 사기 존재를 부정한 가짜소식은 트위터에서 전부 발표하게 했다. 그는 두가지 표준을 실시해 모함당하거나 혹은 공정성을 추구하는 편을 억압하여 진상을 폭로하는 노력을 압제했다. 이런 작법은 중공의 일언당(一言堂)과 같았다. 사람들은 질의한다: 차단과 은폐의 배후에는 대과기회사와 중공, 그리고 좌파세력과 얼마나 많은 이익결탁이 있었는가?

11 월 17 일,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자 제니퍼 루빈은

트위터에 광언을 퍼부었다: “그 어떤 대선 결과를 거절하는 것을 제창, 혹은 선민의지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요구, 혹은 근거없이 사기신고를 제작하는 공화당인은 금후 절대로 판공실에서 임직할수 없으며, 회사 동사회에 참가할 수 없고, 교원중에서 교학할 수 없으며, ‘예의’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명단이 있다.” 그는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을 “재교육 집중영”에 가두어 개조 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외국인을 경악시켰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

만약 현재 미국 대선 선거 상황 수치와 미국 신종코로나 병독 사망수의 수치를 함께 놓고 분석하면 5 월부터 11 월 까지 홍주(프럼프 당선을 인정하는 사람)와 병독 사망율(사망수 제하기 감염인수)은 남주(좌파주,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는 사람)의 절반이다.

역사는 곧 증명할 것이다: 전통과 정의를 견지하는 사람은 바로 신명(神明)이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중공과 멀리해야 만이 평안하다.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

[명후이왕] 옛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풍수사를 불러 풍수를 보게 했다. 그런데 멀리서 집을 지을 땅을 보니 새들이 놀라서 나는 것을 본 주인이 풍수사에게 말했다. “우리 돌아갑시다. 저기 새들이 놀라서 나는 것을 보니 분명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 복숭아를 따고 있을 겁니다. 저희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면 나무에서 떨어질 텐데,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풍수사가 그에게 말했다. “풍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의 착한 마음씨가 곧 가장 좋은 풍수입니다. 어디에 집을 짓든 모두 순조롭고, 앞으로 반드시 재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곳곳마다 풍수를 찾고, 행운을 구한다. 그러나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인지 모른다. 선량한 마음과 풍수의 상서로운 기운은 서로 통하는 것이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사람은 곧 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온갖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면 온갖 재앙이 내린다.” 예로부터 이렇하다.

명당자리를 기증해 학당을 짓다

복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범중엄(范仲淹)은 ‘악양루기(嶽陽樓記)’에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고생스러운 일에는 앞장서고, 즐거운 일에는 남보다 뒤에 선다”라는 천고의 명구를 적었다. 불법(佛法)을 신봉한 범중엄은 관리로서

청렴하고 공정했으며,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교육을 중시했다.

한번은 범중엄이 집 한 채를 샀는데 풍수사가 보더니 풍수가 대단히 좋아서 그곳에서 살면 자손 후대의 앞길이 반드시 원대할 것이며 끝없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했다.

범중엄이 듣고는 그 집을 기증해 학당으로 바꾸고 아이들이 모두 그 학당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했다. 그가 말했다. “백성들의 자손 후대에게 모두 비단 같은 앞길이 열린다면 우리 일가 혼자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범중엄의 네 아들은 모두 재주가 출중했고 관운이 매우 좋았다. 범 씨 가족의 자손 후대는 8백 년 동안 번성했는데, 원인은 바로 범중엄이 쌓은 덕이 자손에게 미쳤고, 범 씨 가문의 자손 후대가 ‘고생스러운 일에는 앞장을 서고, 즐거운 일에는 남보다 뒤에 선다’는 가훈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범중엄 (范仲淹)

연변 박해 진상

길림성 연변지역 사회보험에서 불법 징역형을 받았던 파룬궁 수련생의 양로금을 차단하다

길림성 연변지역에서 2020년 5월부터 불법 징역형을 받았던 파룬궁 수련생의 양로금을 발급 거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 기간에 받아간 전부의 양로금을 단번에 지불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다. 무슨 복형(服刑) 기간 받아간 양로금은 “모령(冒領)”이라며 만약 전부 지불하지 않으면 “기편죄”로 사법부문에 신고 처리해 몇배의 벌금을 안길 것이고, 또는 돈이 없으면 주택을 몰수한다고 협박까지 했다.

사회 보험국은 아무런 통보도 없는 전제하에 양로금 발급을 거부했다. 사회보험 인원은 그 목적은 당사자 스스로 찾아오게 한 다음 돌아가서 판결서, 석방증,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회수할 금액을 지불하는 동시에 또 당안부문에서 당안을 뽑아서 노동국에 받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양로금 발급 정지된 파룬궁 수련생 중 세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독거 노인이 있다. 노인은 양로금 차단된 후 월세비용, 생활비용 등 각 방면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공 불법인원은 노인에게 2 만원을 지불하면 매달 500 원씩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전부 지불할 때까지 달마다 계속 까게 된다고 말했다. 노인의 월세만해도 500 원인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 하겠는가? 노인은 자주 눈물로 얼굴을 씻어야 했다.

일부 지역의 당사자는 아직도 억울한 옥살이중에 있어 가족들도 지불할 돈이 없다고 하자 사회보험 인원은 주택을 몰수한다고 협박했다. 가족은 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도처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지불해야 했다. 공산당이 표방하는 소위 “화목한 사회(和諧社會)”란 바로 백성을 핍박해 더는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쓰인 짧은 동화가 생 각밖으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켜 현재 책을 출판하고 또 음악극으로 제작돼 무대에 올랐다.

이 동화의 작가 겸 언어치료사 류드밀라 오렐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쓴 동화 <연꽃의 이야기>가 어른들에게 먼저 읽고 각 연령사람들에게 계발을 준 이유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동화 이야기는 신비로운 마법 호수의 깊은 곳에 묻힌 작은 연꽃 씨앗의 생명예정을 말했다. 이 씨앗은 자신에게 다가온 낮은 생명체들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아름다운 연꽃으로 성장하여 흙탕물에서 뚫고 나올수 있다. 하지만 작은 연꽃 씨앗은 반드시 백색 큰 연꽃의 교도를 기억해야만이 평범하지 않는 전 변을 실현할 수 있다.

백색 큰 연꽃은 반복해 알려 주었다. “너희들 매 사람마다 모두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위험에 부딪혔을때 너희들이 그들을 생각하면 이런 고난을 넘을 수 있다. 그들은 너희들을 도와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쩨, 썬, 런(真、善、忍)’”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오렐은 그의 이 간단한 동화이야기가 전세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것은 “진실, 선량, 인내 라는 덕목에는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세 가지 보물’이 모든 연령대 사람의 마음을 감동 시켰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 가지 보물’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틀린 것을 규정하려 해요.”라고 했다. 오렐은 “우리들의 생활은 동화속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큰 연꽃이 매한개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들이 일생에세 부단히 자신을 제고하고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47 세인 오렐은 의학영역에서 12년을 봉사 했다. 그는 말했다: <연꽃의 이야기>는 대량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2013년 러시아어판으로 첫 출간해 1 만권을 발행했다. 현재 34 개 언어로 번역돼 온라인판을 제공하게 됐다. 이외 또 3 개 언어는 번역이 최후 단계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 사는 한 독자가 “이 동화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라며 “어린이만 읽을 게 아니라 어른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는 우리 성인의 이야기이다.”라고 알렸다고 오렐은 회억해 말했다.

‘세 가지 보물’

오렐은 인터뷰에서 이를 “도덕적 나침반”이라며 2001년부터 수련하기 시작한 중국의 심신 수련법 파룬궁(法輪大法·파룬따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하나의 자신을 제고시키는 수련공법으로서 5 조의 배우기 쉬운 공법동작을 포함하고 우주의 특성 ‘진, 선, 인(真、善、忍)’을 수련

원칙으로 한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척추 통증으로 앓았던 그녀는 수술 대신 물리치료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치료사를 통해 중국의 건강법인 ‘기공체조’를 접하게 됐다.

편안한 호흡과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은 그녀는 이후 우크라이나의 한 거리에서 파룬궁을 만났다.

파룬궁 수련을 하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한 오렐은 수련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모든 상황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 법도 배웠다고 했다.

그녀는 “문제를 만나면 비난할 사람부터 찾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대신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적 변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렐은 동화를 구상하게 됐다.

직접적인 계기는 한 학교 교사인 친구의 제안이었다.

이 친구는 언어치료사인 그녀에게 “학생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친절과 배려에 관한 수업을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그녀는 아시아권에서 순수와 배려, 자비로움을 상징하는 연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진흙탕에서 피어오르지만 잎 위에 얼룩 하나 묻지 않는 연꽃은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에 적합한 소재이기도 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바른 가치관으로 견고한 토대를 갖게 된다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치관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오렐은 덧붙였다.